“이런 물난리 난생 처음”…순식간에 물 차올라 긴급대피

르포-집중 호우 피해 해남 가보니

시간당 78.1㎜ 새벽 기록적 폭우
앞으론 빗물, 뒤로는 바닷물 콸콸
주택·농경지 침수에 망연자실
장마 전 하수도 정비에도 속수무책
주민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

16일 전남 서남부에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해남군 북평면 남창마을의 저지대 가옥들이 침수됐다. 이날 오후 이웃주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침수 가옥에서 빗물을 빼내는 등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왼쪽)해남 화산면 화산초등학교 강당 뒷편 담벼락이 무너져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해남=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당장 오늘 밤은 마을회관에서 보내야겠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16일 오후 1시께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에서 거주하는 김정심(여·88)씨는 새벽에 물이 차오른 집안을 둘러보고 집앞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해 했다.

김씨는 광주일보 취재진을 만나자 가슴을 쓸어내리며 간밤의 긴박한 상황을 떠올리며 진저리를 쳤다.

새벽 2시께 김씨가 누워 자고 있던 방에 갑자기 물이 들이닥치더니 순식간에 무릎높이까지 올라왔다는 것이다.

단잠에 빠져 있던 김씨는 “아들이 ‘엄마 일어나. 빨리 나가야해’ 고 깨우는 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아들에게 업혀 근처 경로당으로 피신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의 집 내부는 급박했던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마당구석에 있던 장독대는 자리를 잃고 쓰러져 된장, 고추장이 쏟아져 있었다.

집 안은 온통 흙탕물 투성이여서 걸레로 아무리 닦아내도 장판은 밟을 때마다 물이 올라왔다.

냉장고와 선풍기 같은 가전제품은 물론 장롱 속까지 빗물이 들어가 옷가지 뿐아니라 침구까지 모두 흙탕물 범벅이 돼 쓸 수 없게 됐다.

전기장판과 연결된 콘센트가 물에 젖어 감전 위험이 있었지만 김씨 아들은 쓰레받이로 아직 빠지지 않은 안방의 물을 계속 퍼내느라 여념이 없었다.

김씨는 “66년 동안 이곳에서 살았지만 이런 물난리는 처음이다”면서 “살림살이가 다 젖어버려 어떡하냐”며 눈물을 글썽였다.

김씨의 가족들은 해남군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침수된 집안을 계속 치웠지만 눈시울이 붉어지기만 했다.

당장 내일부터 어디서 자고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점에서다. 김씨는 “갑자기 닥친 상황에 머리가 어지럽고 몸까지 아프다”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하소연했다.

인근에서 30년 넘게 철물점을 운영한 노점심(여·75)씨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노씨는 빗물에 잠긴 물건들을 골라내고 빗물과 토사를 닦으며 울상을 지었다.

노씨는 “새벽 내내 비와 천둥번개 때문에 한숨도 못 잤다”면서 “면사무소 직원들이랑 소방대원들이 와서 대피하라고 했는데 내 삶터를 놔두고 어딜 가나 싶어 떠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철물점과 이어진 노씨의 집에는 젖은 바닥을 닦던 신문지와 걸레가 곳곳에 놓여있었다. 그는 “앞쪽으로는 빗물이 들어차고 뒷쪽으로는 바닷물이 들어오더라”며 “아무리 물을 퍼내도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 어떻게 할 겨를이 없었다”고 혀를 내둘렀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부터 16일 오후 3시까지 해남 북일에 132㎜, 해남 땅끝에 129㎜의 비가 내렸다. 특히 이날 새벽 3시께 시간당 78.1㎜ 의 비가 집중됐다. 시간당 63.4㎜ 의 비가 내린 2021년 7월 6일 기록을 넘어서면서 역대 7월 중 해남에 내린 시간당 강수량 극값을 경신했다.

일부 주민들은 “장마 시작 전 지자체에서 하수도를 정비했지만 정작 비가 오니 속수무책이었다”며 “점점 더 비가 많이 온다는데 침수 피해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짧은 시간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배수 시스템이 감당하지 못해 바닷가 인근 저지대를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 같다”며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단계별 비상근무 등을 통해 장마로 인한 피해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공유
의사·의대생 13명 검찰 송치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현장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명단을 유출하거나 공유한 의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파견 공보의 명단을 SNS에 처음 올린 공보의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의료기관에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파견된 공보의 명단을 최초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공문서의 일종인 파견 공보의 명단을 문서 취급자가 아닌 이에게 전달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

명단을 카카오톡에서 공유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의사 10명과 의대생 2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연합뉴스

또 에어자켓 화상사고…용접 불똥 튀어 근로자 숨져

공기 아닌 산소배관 잘못 연결
광양서 60대 치료받다 숨져
잇단 유사사고 대책 마련 시급

폭염을 식히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입는 에어자켓 사고로 숨지는 근로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광양의 한 철강제조업체에서 폭발위험이 있는 산소를 주입한 에어자켓을 입은 채로 용접을 하던 60대가 용접불꽃이 튀어 화상을 입고 치료받다 숨졌다. 사고 현장은 포스코홀딩스 산하 업체의 공장으로 철강을 압연·압출하는 등 공정을 하는 곳이다.

16일 광양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40분께 광양시 태인동의 한 철강제조 사업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A(60)씨의 옷에 불이 옮겨붙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상반신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13일 숨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화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검시 소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A씨가 입고 있던 옷이 작업복 안으로 시원한 공기(Air)를 공급해 더위를 식히기 위한 옷인 에어자켓이고 공기가 아닌 산소를 주입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에어자켓에 불똥이 튀면서 산소 때문에 삽시간에 불길에 휩싸여 A씨가 중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자켓에 산소배관을 잘못 연결한 채 작업을 하다 불씨가 튀어 사망한 사고는 꾸준히 발생했다.

지난 2014년에는 영암의 한 선박생산 사업장에서 작업자가 산소배관을 연결해 작업을 하다 용접불꽃으로 인해 에어자켓에 불이 붙어 사망했다.

지난 2016년에도 충남 아산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대부분 이와 같은 사고는 산소배관과 공기배관의 색깔이 같은 점, 배관에 가스종류가 표기 되지 않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일부 작업자들은 동시에 여러명이 공기배관을 연결할 경우 압력이 낮아 시원하지 않아 아무도 쓰지 않는 산소배관을 연결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은 ‘화재·폭발·누출 사고예방 가이드 북’에 ‘산소공급 상태인 에어자켓 착용 작업 중 화재’를 사례로 들고 서로다른 색상의 배관·호스 사용, 꼬리표 부착, 철저한 안전교육 시행 등을 대책으로 꼽고 있다.

경찰은 A씨 사고 현장에는 산소와 공기배관의 색깔이 구별돼 있고, 가스 종류도 표기 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사업장 업주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한동훈 테러 게시물’
광주경찰, 40대 검거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테러하겠다는 게시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6일 40대 남성 A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50분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복수하러 간다”는 내용의 위협 글과 함께 한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같이 있는 사진을 첨부한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에 신고가 접수되자 A씨의 주거지가 광주시 북구로 확인돼 광주경찰청이 15일 오후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검거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장난삼아 올렸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동기를 추가로 조사한 뒤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콕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H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화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버들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